

본문:히11:8-10

제목:목현리의 아브라함이 되자

8: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1: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어느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아침에 쌀이 떨어졌다는, 사모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쌀 한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오다가 교회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도둑 한 명이 낮에, 집사님이 갖다 놓은 쌀자루를 어깨에, 메려 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살짝 “밀어”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본 도둑이, 으악 하고 놀라자 목사님은, 입에 손을 갖다 대며

“뿔! 조용히 하게, 그리고 빨리 나가게. 도둑은 쌀자루를 메고 후다닥 도 망을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는 쌀자루를, 도둑 맞았다고 한바탕 소동 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예배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틈에, 꽤 크하게 웃을 갈 아 입은 그 도둑이, 앉아 있는 걸 발견 했다 는 실제 이야기 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응대한” 믿음의 장입니다.

신약에서 본 장과 비교되는 것으로, 고전 13장의 사랑 장과,

고전 15장의, 부활 장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랑 장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이며

부활 장은, 부활의 논문 인데 대해

본장은, 믿음의 역사이며 “실증록” 입니다.
16명의 믿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창11-25장까지, 1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25:7-8절에, ” 175세에 “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본 믿음장에서도 “중심인물” 입니다.
창15:6
6: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창15:1-5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은?
창15장, 딱 1번 나옵니다.
당시 다메섹은, 유프라테스강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여,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 이었습니다.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은,
여러 문화적, 사회적인 부분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유주” 할 수 있습니다.

☺ **롯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300명을 데리고 구하러 갑니다.
(당시 아브라함 가문에는 1,000-2,000명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한 사람이, “엘리에셀” 이었습니다.

☺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먼길을 떠**

났을 때

창24:64-65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중에게 말하되, 들어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중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 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라며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자이었고,
아브라함의 중이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 그런데 창 24장에는, 엘리에셀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냥 늙은,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걸 보면 엘리에셀은, 자기를 켜서 복중시킨, 사람임을 알 수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묵헌리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1.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히11:8

8: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했는데 그는 믿음은, 출발하였고

☺ 이삭을 드릴 때 성숙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히11:17-19

17: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
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

리라 하셨으니

19: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 예수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시며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더불어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미지의 땅을 향해, 용감히 출발했습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과학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과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으로
그의 믿음에, 절정을 장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 면으로 모순과, 역리가 많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모순과, 역리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순종” 그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 마귀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순종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그대로
요2:5

5: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
로 하라 하니라

우리 모두 순종하는 묵연리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아브라함은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히11:9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 **이방과 약속의 땅이, 대조 되고 거류와 거하였으니, 대조적입니다.**

😊 **거류란?**

나그네가 다른 민족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사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생활하는 곳이, 장막입니다.

장막은, 고대 유목민들이 쓰던 천막으로, 끝없는 방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의 40년간 장막생활을 하였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 역시 장막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땅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류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족장은**

가나안 방랑에 전체의, “주인공이었으므로” 같이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3족장은, 안정되지 못한 나그네, 생활에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참고 미래의 영원한, 거주를 다같이 대망한 것입니다.

😊😊 **우리들은 이 땅의 장막에서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건, 재, 감, 입, 시, 가, 마, 영**

- 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 ② **재물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 ③ **감정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 ④ **입술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 ⑤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 ⑥ **가정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 ⑦ **마음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 ⑧ **영혼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입니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 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사회가 “운택해” 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만 먹는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 수록 점점,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넓어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장막의” 삶을 살지만

노인이 아닌, 어른 혹은 어른신의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 땅의 장막을, 다 떠납니다.

아무리, 크고 비싼, 장막이라도 두고,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맨션을 위해 순간적인, 장막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현리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아브라함은 “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었습니다.

히11:10

10: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낸 이유는?

보다 좋은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절은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견디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11:1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와, 찰리 스타인 “메츠” 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 스타인 메츠는, 전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스타인 메츠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 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의 가동이 멈추었습니다.

일반 전기공과, 수리공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발전기가, 다시 돌아가도록 고치지 못했습니다.

포드는 다음으로 스타인, “메츠를” 불렀습니다.

전기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 스타인 “메츠가” 도착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규모 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마침내 그가 스위치를 돌리자, 그 큰 포드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헨리 포드는”

스타인 “메츠로부터” 1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드는 비록 부자이긴 했으나, 그 청구서에다
이렇게 쓴 노트를 붙여서, 들려보냈습니다.

찰리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그 모터를 두들기며
몇 시간 일한 거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나요

😊 스타인 메츠는 포드에게, 청구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터를 두들기며 일한 것은, 10달러이고.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낸 것, 9,990달러. 함께 10,000달러.

헨리 포드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지불했습니다.

스타인 메츠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발전기를 만들고, 설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가, 고장 나고 문제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묵현리에 행복한 교회,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